

초연한 관찰자가 되는 길.

오늘 밥다다는 이 낡은 세상, 낡은 왕국의 세상, 완전하게 부패한 세상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다. 밥다다는 그의 자녀들이 이 낡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참고 견뎌야 하는지 보았다. 지금은 영혼들이 즐거워하는 때이긴 하지만, 몸을 통해서 너희는 참고 견디기도 해야 한다. 너희들의 왕국에서는 5원소 모두 변함없이 순종적으로 시종을 드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가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낡은 것이 새롭게 만들어져야 한다. 너희는 낡은 세계에서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지금 너희가 하는 봉사는 여러 생에 걸쳐서 섬겨야 하는 데서 너희를 해방시킨다. 지금 너희가 하는 봉사의 결과, 원소들뿐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들도 영원히 너희를 섬기려고 항상 너희 주변에 머물 것이다. 이런 이유로 너희가 영구히 가질 성취 전체와 비교하면 잠시 동안 좀 참고 견디는 것은 전혀 참는 게 아닌 듯이 느껴진다. 고귀한 봉사의 도취감과 행복은 참고 견뎌야 하는 데서 신성한 행위로 변한다. 바가와드는 너희들이 관용하는 힘으로 행하는 신성한 행위에 대한 기념물이다. 이처럼 너희가 참고 견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행위의 기념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심지어 지금도 너희는 아버지와 만나기 위해 신의 자녀들이 사랑에서 우러나 뭇 했으며, 고프 발라브의 고프들, 고프카들이 뭇 했는지에 대한 기념물에 대한 얘기를 듣는다. 그러므로 이 관용은 관용이 아니라, 이렇게 참고 견디는 일은 너희를 강력하게 만들고 있다. 관용의 힘을 가질 때 너희는 전능한 권위자 마스터가 된다. 너희는 참고 견뎌야 한다고 느끼느냐, 이것이 한낱 게임에 불과하다고 느끼느냐? 너희의 마음은 끊임없이 춤추고 있지 않느냐? 이처럼 마음의 행복은 이 약간의 관용을 행복으로 바꾸어놓는다. “몸은 당신의 것이고, 마음도 역시 당신의 것”이다. 따라서 너희가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라 하는 그 분은 그것에 관해 안다. 너희는 단지 초연한 상태로 사랑하며 지낼 뿐이다. 몸에 대한 카르마의 부채를 청산해야 하는 배역을 연기해야 할 때가 되면 끊임없이 “바바, 당신은 이것에 대해 아십니다, 당신은 뭇 해야 하실 지 아시죠!”라는 의식을 가져라. “저는 아파요! 제 몸이 병들었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다. “제가 돌보도록 믿고 제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는 뭇든 당신이 아십니다. 초연한 관찰자로서 저는 단지 당신이 저를 믿으며 위탁하신 모든 것으로 봉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를 두고 초연한 관찰자가 되는 것이라 한다. 위탁 관리인이 되어라. 마찬가지로 “마음도 역시 당신의 것입니다. 전혀 제 것이 아닙니다” 라 해야 된다. “제 마음을 그것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제 요가는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저의 지각을 집중시킬 수 없네요.” 이럴 때 ‘나의’라는 말은 격동을 일으킨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라는 의식을 끝내는 것이 곧 일체의 굴레에서 해방된다는 뜻이다. “내 재산, 내 아내, 내 남편!” “제 아들은 지식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의 지각에 감긴 자물쇠를 열어주세요!” 너희는 어째서 단지 그만을 생각하느냐? 왜 나의 것이라는 감정을 갖고 생각하느냐? 이제까지 “저희 마을, 또는 저희 나라의 영혼들에게 잠겨있는 자물쇠를 풀어주소서”라고 얘기한 자녀는 하나도 없었다. 너희 모두 “제 아내” “제 아이”에 대해서만 얘기한다. 나의 것이라는 의식 때문에 너희는 무한해지지 못한다. 그러한즉 모든 영혼들에 대해서 무한한 좋은 염원을 가지면서 그 영혼들과 함께 다른 모든 이도 역시 보라. 너희는 뭇 이해했느냐? “모든 것은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면 저에게는 아무 부담도 없습니다”라는 것이 당신의 것이라는 뜻이다. 밥다다는 너희를 어디서든 봉사의 도구로 만들 수 있다. 그는 너희가 몸을 통해서나 마음을 통해서 봉사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가 원하는 곳 어디든 어떤 상황에든 그는 너희를 배치할 수 있다. 그는 너희에게 단순히 달과 로티만 먹일 수도 있고, 36가지 다양한 음식을 차려줄 수도 있다. 어쨌든 내 것은 아무 것도 없으니 “당신이 해야 하실 일에 대해서는 뭇든 다 아십니다” 이다. 너희가 어째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느냐? 신은 언제나 그의 자녀들을 몸, 마음, 부의 측면에서 편안하게

지켜줄 것이다. 아버지가 보장한다. 그러니 너희 모두 무엇 때문에 짐을 짊어지고 다니느냐? 지난번에도 일렀듯이 너희는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니 아버지가 주는 대로 먹고 그가 주는 대로 마시고 한껏 즐기며 그를 기억해라. 너희의 의무는 단 하나뿐이고 그게 전부다. 다른 의무는 전부 다 아버지가 자동적으로는 이행할 것이다. 의무가 하나뿐이니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마음이 말썽을 일으키는 것은 너희가 “내 것”이라고 말할 때다. 너희는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테지? 그것은 어렵지 않은데 너희가 그것을 어렵게 만든다. 나의 것이라는 의식이 그것을 어렵게 만들고 당신의 것이라는 의식은 모든 것을 쉽게 만든다. 세계를 유익하게 하려는 느낌을 가져라, 그러면 세계 유익의 과업이 빨리 달성될 테고 너희는 그때 너희들의 왕국에 갈 것이다. 거기서 너희는 이런 식으로 부채질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더웠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갖가지 색깔의 부채를 주었다.) 거기서는 원소들이 너희에게 부채질을 해줄 것이다. 다이아몬드 하나하나가 참으로 여러 가지 빛을 발해서 거기서의 조명은 너희가 여기서 가지는 조명보다도 더 멋질 것이다. 너희는 다이아몬드에서 나는 색깔들을 언제나 전부 (대개 아홉 색깔이 나온다고 일컬어진다) 다 가질 것이다. 거기서 빛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저 상상만이라도 해봐라! 온갖 색깔이 다 어우러진 빛은 참으로 아름다울 텐데, 여기서는 그저 단색뿐인 전등마저 계속해서 게임을 한다. 그러므로 봉사의 과제를 완수해라. 완성되어라, 그러면 너희의 왕국, 온갖 유형의 행복으로 가득한 왕국이 거의 여기에 생길 것이다. 이해하느냐?

오늘은 모든 이가 다 떠나는 날이다. 밥다다가 모든 것을 빨리 끝내야만 너희가 갈 것이다. 너희가 지금은 기차 등으로 달려가야 할 테지만 반면에 너희의 궁전에서는 온 사방에 비만들이 세워져 있을 것이다. 심지어 조종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을 것이다. 너희는 아주 어린 나이에 그 비행기들을 조종할 수 있을 것이다. 아주 어린 아이도 스위치만 누르면 비행기가 날 것이다. 거기서는 어쨌든 사고가 전혀 없을 것이다! 비만들은 지금도 역시 준비되고 있다. 하지만 너희들 모두 항상 준비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천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비슈와카르마 (단기간에 새로운 세상을 건설할 새 세계의 기술자들, 건축가)들이 지시를 내릴 것이고 그러면 궁전들과 비만들이 준비될 것이다. 그것은 신의 마법이라는 보상을 받은 나라다. (모든 이가 부채를 흔들고 있었다.) 이것 역시 아주 좋은 장면이어서 사진 찍을 만한 가치가 있다. 색색의 부채를 흔들고 있는 광경을 다른 집회에서는 너희가 결코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앗차.

한결같이 “당신이 뭘 해야 할지 당신은 아십니다!” 라는 결단력 있는 생각을 하는 자들에게, 무한한 영혼들 모두에게 끊임없이 좋은 염원을 가지는 자들에게, 기억을 통해서 그들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기념물로 만드는 자들에게, 그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밥다다가 연수 받으려고 온 쿠마리들 그룹을 만나심.

너희들 모두 제 스스로를 아버지의 오른손이라고 여기느냐? 너희는 왼손이 아니겠지? 오른손이다, 하나는 손 그 자체이며, 봉사에 한결같이 협조하는 이도 역시 오른손이라고 불린다. 그래서 너희는 각자 봉사에 변함없이 협조하겠다는 결단력 있는 생각을 해오지 않았느냐? 너희는 돌아가서도 이것을 잊지 않을 테지? 이런저런 이유로 봉사현장에 나갈 수 없는 자들도 역시 모두 “나는 반드시 봉사에서 동반자가 되어야 해”라는 목표를 가진다. 모든 생각 하나하나에 봉사가 합쳐져 있게 해라. 어디에 살든 끊임없이 너희 스스로를 위대한,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이라 여기며 계속 전진해라. 어느 누구에게도 너희의 (불순한) 시선을 주지 말고, 다른 누구의 (불순한) 시선도 너희에게 끌리지 않게 해라. 너희 스스로를 참으로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이라 여기면서 계속 나아가라.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이라는 의식을 갖고 전진하는 쿠마리에게는 어느 누구도 시선을 던질 수 없다. 끊임없이 이 측면에 주의해라. 이 의식이

느슨해지도록 스스로를 결코 허용하지 마라. 이미 브라마 쿠마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부주의해지는 일은 절대 없게 해라. “나는 이제 다디 또는 디디가 되었다”가 아니다. 이것은 단지 명목상일 뿐이지만 너희는 고결한 영혼, 숭배받을 가치 있는 영혼, 힘의 화신인 영혼이다. 어느 누구도 시선을 삭티(여신)에게 던질 수 없다. 누군가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향했다면 그가 염소로 변했음을 보여준 것이다. 염소는 검은 색이므로 염소가 된다 함은 추한 영혼이 되었다는 뜻이다. 염소의 지각이라는 것은 둔감해졌다는 뜻이다. 나쁜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 사람은 둔감한 지각, 염소의 지각을 가진 자가 된다. 누군가 너희에게 시선을 돌리게 할 이유가 있느냐? 이 역시 쿠마리들의 나약함이라고 불릴 것이다. 판다바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나약함이 있고 쿠마리들에게는 그들만의 고유한 나약함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 스스로를 점검해라. 다디들과 디디들은 어느 누구의 시선도 너희에게 향하지 않게 하려고 마음을 쓴다. 이처럼 너희들은 강한 쿠마리들이 아니냐?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감동되지 마라. “이 봉사자는 아주 좋군, 이 사람은 봉사에 아주 훌륭한 조력자이며 동반자야.” 아니다! “이 사람은 일을 참으로 많이 해!” 아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이는 아버지다. “나는 봉사를 아주 많이 하고 있어.” 아니다!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일이 되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 너희 스스로 약해지지 말고 남들도 약해질 틈새를 허락하지 마라. 이 측면에서 바바가 어떤 보고를 받을 일도 없게 해야 한다. 판다바들도 역시 아주 영리하다. 누군가 아주 좋은 음식이나 옷을 가져오면 그것도 역시 마야다. 그럴 때 그들은 마야의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너희들은 마야를 알아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럴 때는 그 물건을 사물이 아닌 뱀이라고 여겨라. 뱀은 반드시 물 것이다. 너희 스스로를 항상 그렇게 엄격한 눈으로 살펴야만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마야가 너희들 중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 너희를 제 것으로 만들려고 무척 애쓸 것이다. 초창기에 밥다다는 나이 어린 쿠마리들 모두에게 “너희는 이 정도의 칠리를 먹어야 할 것이다. 너희는 이 정도로 물을 많이 마셔야 할 테지만, 겁내지는 마라” 라고 얘기해주곤 했다. 마야는 이처럼 올 것이다. 마야는 아주 큰 형태로 올 것이다. 하지만 그녀를 알아보는 자들은 언제나 승리한다. 그들은 결코 패배당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들 모두 알아차리는 힘을 hunshetna,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하느냐? 보아라, 이제 모든 이의 사진을 찍었다. 아주 확고하게 지내라. 이 측면에서 쿠마리들이 삭티의 형상이 된다면 엄청난 칭송의 박수가 터질 것이다. 심지어 밥다다도 승리의 꽃으로 너희에게 꽃 세례를 퍼부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결과를 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앙가드처럼 되어라.

적시에 이해할 지각을 가진다는 것은 행운을 지녔다는 표시다. 적기에 열매를 맺는 나무는 아주 가치 있다고 불린다. 세상에 다른 무엇이 있느냐? 걱정과 슬픔 외에 다른 것은 없다. 그러니 확실하게 계약을 맺어라. 뭔가 아주 아름답거나 매력적인 사물이 너희 앞에 오거나 매혹적인 사람이 너희 앞에 나타나도 이끌리지 마라. 생각이나 꿈에조차 과거의 것들은 기억하지 마라. 그것들은 전생의 일들인 양 여겨라. 그것들에 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마라.

밥다다가 그룹들을 다 만났을 즈음 암릿 벨라 시간이 되었다 .

보아라, 너희는 낮을 밤으로, 또 밤을 낮으로 바꿨다. 이것은 고프들, 고포카들에 대한 칭송이다. 너희가 엄청난 춤을 추고 있을 동안 밤이 낮으로 변했다. 이것은 너희들 모두에 대한 칭송이다. 너희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 속에 한결같이 늘 잠겨있는, 사랑하는 영혼들 아니냐? 자녀인 너희가 사랑하는 그 정도만큼 아버지는 몇 백만 곱절로 더 사랑한다. 너희는 이 경험을 하지 않느냐? 1초에 그저 아버지만 생각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임한다. 그는 아주 잘 섬기는 봉사자가 아니냐? 아버지는 전체 모든 봉사자들 중에서 최고로 빠른 봉사자다. 나머지들은 각자 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들은 일어나서 준비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다음에 너희에게 도달할 것이다. 아버지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그저 그를 부르기만 해라, 그러면 그는 1초 이내에 너희에게

도달할 것이다. 그는 항상 모든 이를 섬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결코 어느 누구도 괴롭히지 않는다. 보라, 심지어 지금도 그가 여기에 앉아 있는 시간 동안 그는 사랑에 잠긴 채 앉아 있었느냐, 아니면 그가 지쳤느냐? 밥다다는 자녀들 모두를 보며 매우 기쁘다. 아버지는 자녀들 모두를 즐겁게 해주겠다는 계약을 맺었으니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느냐? 자녀들은 각자 그 옆의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 받는다. 사랑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너희는 자녀들인데, 그러니 자녀들이 어찌 사랑 받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 모두 서로보다 더 앞서있다. 자녀들 모두 백성이 아니라, 왕이 될 왕가의 자녀들이다.

신봉자들은 너희의 살아 있지 않은 형상에 자그란 (밤새도록 깨어 있으면서 신봉을 행하는 일)을 행한다. 어느 때가 너희들도 역시 모두 이렇게 했고 그래서 신봉자들이 너희를 따라하는 것이다. 이 자그란은 너희가 수입을 곱절로 벌 수 있게 해준다. 너희는 현재를 위해서 수입을 벌었으며, 현재를 토대로 미래 역시 고귀해졌었다. 그래서 너희는 시혜자 영혼들이다. 만사 모든 것에 유익이 들어있다. 유익이 없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너희는 시혜자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겉보기엔 어떤 것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예컨대 만일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손실이 생기지 않느냐? 사람들은 그것이 손실이라고 얘기할 것이다. 하지만 합류시대 영혼들에게는 심지어 그 손실에도 유익이 들어있다. 손실마저 십자가에서 가시로 변한다. 엄청난 손실에서 그것은 아주 사소한 손실이 된다. 이것에서도 역시 끊임없이 유익이 있다고 여기며 계속 전진해라. 너희 스스로를 그러한 시혜자 영혼이라 여기며 계속해서 나아가라. 아버지는 너희를 이미 그 스스로와 같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시혜자이니 자녀들 역시 시혜자들이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그보다도 더 앞에 세운다. 너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숭배되고 너희는 더블 왕국을 통치한다. 그러니 끊임없이 “그것은 고귀한 영혼인 나의 경이로움이다. 그것은 숭배받을 가치 있는 나의 기적이다! 그것은 쉬브 샹티인 나의 놀라운 기적이다” 라 할 만큼 도취감과 행복을 느껴라. 한결같이 이 의식을 지속해라. 앗차.

너희들 모두의 집은 마두반이다. 너희가 집인 파람담으로 가는 출입증을 받는 것은 마두반에서다. 육신의 형태로는 마두반이 너희의 집이고, 파람담은 비물질의 세계다. 너희들의 진짜 집은 마두반이고 여기서 너희들 모두 각자의 봉사 장소로 갈 것이다. 그것을 너희의 집이라고 여긴다면 너희는 밋에 사로잡힐 것이다. 그것을 봉사 장소라 여긴다면 너희는 초연한 상태로 머물 것이다. 너희가 도구가 되어준 영혼들에게 너희는 혈연 관계라는 측면이 아닌, 봉사의 측면에서 도구인 것이다. 너희들은 봉사로 연결된다. 끊임없이 기억하며 머물며 봉사해라, 그러면 너희가 쉽게 애착의 파괴자가 될 것이다. 앗차.

특별한 봉사자는 모든 과제에 특출함을 보이는 사람이다. 너희 모두 봉사자들이지만, 특별한 봉사자는 각자의 특기를 보일 것이다. 뭔가 봉사를 할 때나 어떤 계획을 세울 때마다, “나는 이 봉사에 어떤 특별함을 담았지?” 라고 생각해봐라. 특별한 봉사를 함으로써 너희는 특별한 영혼들로 유명해진다. 항상 그 일을 통해서 너희가 자동적으로 특별한 영혼이 되어 아버지와 가족 앞에 나오도록, 뭔가 특별한 일을 하겠다는 목표를 간직해라. 항상 이런저런 특기를 보이는 자가 되어라. 그것은 너희를 초연하면서도 사랑하게 만드는 특기다. 그러니 모든 과제에서 특별한 새로움을 보여라. 진정한 봉사자들은 갖고 있는 모든 힘으로 협조하면서 계속 전진한다. 이 봉사에 참여해서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라. 앗차. 옴 샹티.

Blessing: 변함없는 타파샤의 형상이 되어, 버림과 타파샤의 도움으로 봉사에서 성공을 달성해라.

봉사자란 버림과 타파샤의 형상이 된다는 뜻이다. 버림과 타파샤, 양쪽의 도움이 있으면 너희는 항상 봉사에서 성공을 달성한다. 타파샤는 아버지 한 분에게만 속할 뿐 다른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것이다. 한결같은 이 타파샤를 끊임없이 계속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봉사하는 장소는 타파샤의 장소 (오아시스)가 될 것이다. 나방들이
제 스스로 그리로 갈 정도로 그런 타파샤의 오아시스를 만들어라. 너희 마음으로
봉사함으로써 강력한 영혼들이 드러날 것이다. 자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으로 땅을
변화시켜라. 이것이 곧 확장을 달성하는 방법이다.

Slogan: 겸손과 인내의 힘으로 화의 불을 서늘하게 식혀라.

***** 음 산티 O M S H A N T I *****